

후원안내



후원미사 안내*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7월 후원미사는 17일, 8월 후원미사는 21일, 9월 후원미사는 18일에 봉헌합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후원회원은 성북구 보문동에 위치한 **노동사목회관**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문의 / 02.924.9970~1

2017년 5월 후원회원 후원금 사용 내역서*

수입내역

수입 총액	20,626,185	전월이월금	7,315,537
지 로	1,940,817	우리은행	3,633,331
국민은행	3,888,000	하나은행	1,221,000
조흥은행	750,000	신한은행	1,010,000
외환은행	417,500	제일은행	160,000
농 협	1,185,000	기업은행	255,000
우 체 국	145,000	지정기탁	390,000
		교구보조	-

지출내역

항 목	지 출	세부내역	
단 체 찬 조 비	베들레헴어린이집	7,000,000	인건비, 주부식비, 교육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베다니아의 집	1,5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벳들의 집	925,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행사비 등
	마고네공부방	1,000,000	간식비, 교육비 등
	몽골공동체	200,000	제전비
	남미공동체	300,000	제전비
	상호문화센터	800,000	한글반 외 운영 프로그램 비용 등
	소 계	11,725,000	
지원금	노동사목위원회	5,000,000	장기수선총당금 등
운영비	이주사목위원회	2,575,000	운영비 등
지정기탁금	지정기탁	390,000	산재, 진폐환자 가정 생활비
지출 총액	19,690,000	잔액(이월금)	936,185

후원계좌 안내*

우리은행 454-006742-13-007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국민은행 093-01-0297-691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좋은이웃

www.seoulmigrant.net

2017. 6 / 제12호

펴낸날 2017. 6. 19 펴낸곳 이주사목위원회 펴낸이 남창현 편집 김평안 주소 (우)02872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95 노동사목회관 4층 이주사목위원회
전화 (02)924-9970~1 팩스 (02)924-9972 이메일 migrant@catholic.or.kr 홈페이지 www.seoulmigrant.net

신부님글

즐거운 중에도 주님을 섬겨라

후원회원 여러분과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여름이라고 말하기에는 조석으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온몸을 움추러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덕에 잠이 다 달아나지 않은 졸린 눈과 지친 정신을 맑게 만들어 주면서 활기를 되찾게 됩니다.

한 달을 시작할 때 처음 하는 일은 위원장 신부님과 각 쉼터의 미사를 정하는 일입니다. 미사가 정해지면서부터 하얀 일정표 수첩은 서서히 검은색과 붉은색으로 물들어 갑니다. 어느덧 꽉 채워진 일정표를 보면 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열심히 하루, 일주일, 한 달, 그렇게 일 년이란 시간을 보내고 나면, 갑자기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변화가는 이주민의 삶을 보면서 움추러든 마음에 활기가 차츰 더해갑니다.

마고네공부방 아이들이 공부와 숙제, 그리고 받아쓰기에서 또래의 다른 아이들만큼 하는 것을 보면서 행복합니다. 역시 인내의 시간이 아이를 성장하게 한다는 말이 맞는 듯합니다. 쉼터의 엄마들도 자립을 위해 노력하면서 스스로 아이를 양육하고 성당에 보내며 첫영성체를 준비시킵니다. 올해 두 명의 아이가 첫영성체를 합니다. 이 또한 행복입니다.

5월의 마지막 주일에는 명동성당 배려로 성당바자회에서 남아메리카의 폭우와 지진피해를 돕기 위한 성금모금을 진행하였습니다. 남미 음식과 이주여성들이 직접 만든 앞치마와 예코백, 파우치와 손수건을 팔았는데 인기가 좋아 조기 품절에 추가 주문도 받았습니니다. 행복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태능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신부님! 안녕하세요?"라는 인사가 들려왔습니다. 건너편 도로에서 베트남 친구들이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합니다. 베트남공동체 축구대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저를 보고 인사를 건넵니다. 일 년에 몇 번 베트남공동체 미사에 갔었는데 그런 저를 기억하고 반갑게 불러주어 참 행복했습니다.

삼위일체대축일을 기다리면서 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요한 3,17)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님 같았으면 합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솔직히 그리스도의 삶을 따른다는 것은 어렵고 힘들며 유혹과 현실의 시련 앞에서 움추러들 수밖에 없겠지만 하느님 아버지의 숨으로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지난 주일에 받은 성령강림의 은총으로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오로의 인사로 후원회원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주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2코린 13,13)

삼위일체 대축일 준비하면서
천주교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부위원장 김 평 안 마르코 신부

공동체 소식

서울가톨릭이주난민센터 소식 소식*

가톨릭이주난민센터에서 2017년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사업인 "알록달록 아카데미" 공모사업에 참가하여 선정이 되었습니다.

대상은 성북구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80%)와 타 지역 결혼이민자(20%)이며, 한국어교실, 무지개공방(재봉교실), 요리보고 세계보고(다문화 요리교실) 등 3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 능력과 자아효능감을 향상 시키고 나아가 한국 생활의 순조로운 적응을 도움으로써 결혼이민자 여성 및 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무지개공방에는 15명의 결혼이민자가 재봉기술을 습득하고 있으며 향후 다국적 특색을 지닌 독창적이며 상품성 높은 제품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번 남미 홍수피해자를 위한 바자회에도 이주여성이 직접 만든 에코백, 앞치마, 파우치 등 생활소품을 제작·판매하여 성금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다문화 요리프로그램인 요리보고 세계보고는 4월 17일 한식요리를 시작으로 25명의 다국적 결혼이민자가 참석하여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메뉴 선정에서부터 이주여성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 한몫을 하긴 하였지만 참가자들의 열의와 만족도가 높으며 요리는 상호 문화를 이해하고 교류하는 데 있어 상당히 중요한 매개체임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연간사업이 마무리 된 후 이를 기반으로 결혼이민자들의 취업연계 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소식*



"이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 대책을 촉구한다."라는 주제로 5월 17일 4대 중단 이주, 인권협의회(원불교 인권위원회 이주인권협의회,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 이주민소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주교회의 국내이주사목위원회)가 조계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의 참담한 인권 현실을 지적하며, 새 정부에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우선 이주민의 인권을 일상적으로 보호하도록 국가 정책의 기초를 정립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이며, 차별이 가진 폭력성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식하고 이를 없애도록 하는 첫걸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천주교의 입장을 발표할 주교회의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총무 이상민 신부는 이주민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 대책으로 '인종차별금지법 제정'을 들며 "오랫동안 이주민과 함께한 활동가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나은 대책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가톨릭의 뜻인 '보편적'이라는 의미가 가톨릭 신자 대통령의 재임 중에 보편적 인권의 실현으로 이뤄지길 기도하겠다."며, "모든 이를 위한 보편적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베들레헴어린이집 소식*



▲ 오감자극 모래놀이



▲ 오이수확



▲ 종이컵 놀이

문화알림

필리핀의 성모 성월 축제(플로레스 데 마요와 산타크루잔)

필리핀에서는 5월 내내 성모님을 공경하고 기리는 축제들을 지낸다. 그 하나가 '플로레스 데 마요'(Flores de Mayo, '5월의 꽃들')라는 축제다. 그리고 이 축제 끝머리에 '산타크루잔'(Santacruzán, '거룩한 십자가')라는 가장행렬을 한다. 필리핀에서 이 축제를 지내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중반이다. 1854년에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 교의가 선포되고 그 얼마 뒤에 마리아 신심을 소개하는 책자가 출판된 뒤부터다. 이를테면 플로레스 데 마요는 15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축제다. 필리핀 사람들은 필리핀 국내뿐만 아니라 그들이 진출해서 공동체를 형성한 곳 어디서나 이 축제를 지낸다.

필리핀의 5월은 한동안 지속되던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는 때다. 비가 내리면서 온갖 꽃들이 피어나서 향기가 진동하는 때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께 봉헌된 달이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가 된 필리핀 사람들은 은혜로운 달에 성모 마리아께 찬미와 공경을 드리는 가운데 비가 내리는 것을 경축하기 시작했다.

지역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개는 여러 종류의 꽃들을 가져다가 성당의 제단과 통로를 꾸민다. 그리고 성모님께 꽃들을 잘라 엮은 꽃다발을 드리거나 꽃잎들을 뿌린다. 성당이나 성모상 앞에 모여서 성모님의 덕행을 기린다.

묵주기도를 바치고 성모 성가와 성모 호칭 기도로 성모님을 찬미한다. 말끔하게 옷을 차려입고서 농작물들을 무럭무럭 자라게 해 줄 비를 환영하는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춘다. 그리고 저마다 집에서 가져온 음식을 나눠 먹는다.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은 한 달에 걸친 축제가 끝날 즈음에 또 하나의 사건, 곧 성녀 헬레나가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던 십자가를 발견한 것을 기념하고 기리는 행사를 성대하게 거행한다.

산타크루잔 축제

산타크루잔 행사는 종교적 의미를 갖는 필리핀 전통 행사이다. 이 행사는 5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동정 마리아께 꽃 봉헌(특히 어린이들이 봉헌)을 하고, 마지막 날인 5월 31일에 성모님을 모시고 행렬하는 행사이다.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쥐고 있는 헬레나 여왕이나 천사, 성모님을 상징하는 전통 의상을 입고 참석한다.

역사적으로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수백 년 전, 신성한 십자가 앞에서 전쟁을 해도 될 지 물었고,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고 전쟁에 승리하여 정복한, 그리스도인 첫 번째 로마 황제이다. 그의 어머니인 헬레나 여왕은 서기 326년에 성지 순례를 가서, 예수님께서 매달리셨던 나무로 된 성스러운 INRI의 십자가를 발견했다. 이 십자가를 'Santa Cruzan'이라고 부른다.

이와 같이 종교적 행사인 산타크루잔은 헬레나 여왕이 예루살렘에서 성스러운 십자가를 발견했던 당시를 재연 또는 기념하며 성모님을 모시고 성전에서 성전으로 동정 마리아와 관련된 노래를 부르고 묵주기도를 바치며 이동하는 필리핀 전통 행사이다. 그리고 이 행렬의 끝은 성모님께 꽃을 봉헌하면서 마무리가 된다.



동정 마리아께 드리는 이 전통적인 행사는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공경이며,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깊은 믿음과 한 분이신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행사이다.

이런 의미로 이주사목위원회 산하 필리핀공동체는 5월 28일 주일에 필리핀공동체 센터(성북동)에서부터 혜화동 성당까지 성모님을 모시고 행렬을 진행하였습니다.

